

일부 군 사병의 성 의식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김 남 초 · 오 정 아(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한 해 자 · 김 미 혜(신성대학 간호과)
김 준 권(신성대학 유아교육과)
이 해 자(신성대학 물리치료과)
김 미 정(신성대학 호텔식품과)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I.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에이즈는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자발생이 공식 발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도 말 세계보건기구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환자 수는 약 3,600만명으로 성인남자가 1,830만 명, 성인여자가 1,640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1). 우리나라도 1985년 첫 에이즈환자가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국내 에이즈 환자수는 약 1,280명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보건복지부, 2001), 그 수는 외국에 비교해 볼 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유교사상에 근거한 성도덕 관념으로 인해 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왔다.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용어가 남녀의 성담론에 대한 엄격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간 별 저항 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잡혀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유입된 서구사회의 성 개방 물결과 함께 성폭력, 미혼모, 에이즈 감염 등

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우리 사회도 성 윤리와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성 반응은 여자의 경우 20대 중반이나 30대 초에 절정을 나타내는 반면 남자는 청소년기에 절정에 달하며 자위행위는 남자 청소년에게 흔한 성적 행위이다(하양숙 등, 1995). 그러나 대다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대학입시라는 이상 교육열풍으로 인해 모든 욕구와 행동은 억압되고 오직 공부만을 강요당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억압되어 왔던 구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이들은 미처 올바른 성 윤리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이성교제를 하며 그동안 억눌려왔던 성적 충동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성병 등 예기치 않은 성 관련 문제점 등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20세를 전후하여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청년들도 이러한 시기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하겠다(이영선, 정문숙, 2001).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특수집단으로서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지로 인해 자유로운 이성관계를 할 수 없게되므로 사병들은 많은 욕구불만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전찬원, 1979). 따라서 반사회적인 성

범죄행위가 빈번하고 윤락녀들과의 접촉기회 증가 및 성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성병감염이 증가되어 개인의 사기저하 뿐 아니라 군의 전투력 손실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김정아, 1982). 지금까지 성적인 문제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노출을 꺼려 이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군대는 성적인 충동이 비교적 강한 남성의 연령대가 집단 거주하는 공동체이며 대부분 미혼남자들이어서 전역 후에 이성교제로 야기될 수 있는 원치 않는 임신,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집단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이 된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백신개발이 아직까지 요원한 현재의 실정에서(Fauci & Lane, 1998), 실제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WHO, 1998). 에이즈의 특성과 감염경로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성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약 45%정도가 실제 15-24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4세 미만의 미혼 남자 층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WHO, 1999).

때마침 국방부는 1999년 10월부터 "병영에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내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그 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성교육을 정례화 하여 모든 사병들을 대상으로 일반 부대에서는 연간 4시간씩, 신병훈련소에서는 6주 교육기간 중 2시간 씩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국방일보, 1999). 그러므로 이들의 성에 관한 의식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군 사병을 위한 성 관련 교육 계획에 근거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사병들의 성에 관한 의식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군 사병의 성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병들의 성에 관한 의식을 파악한다.

2) 사병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사병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인간의 성(性)은 생명과 사랑을 창조하는 기본적인 원천으로 인간행위의 모든 특성 속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격체적인 기능이므로(권현주 등, 1998) 부정적인 것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은 역사와 민족 혹은 사회환경과 성별에 의해 그 인식과 개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재성, 1983).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 따라 대학생들을 포함한 미혼 남녀들의 성 윤리와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성 의식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한 성한기(1996)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88%가 스스로 성에 관한 지식수준을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61.5%에서 남녀 모두 혼전 성 관계를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의 성 지식 수준이 높고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의 성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후 권현주 등(1998)이 Q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본 대학생들의 성 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에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남녀의 성 관계를 그 자체로 인정하였으며 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받아들이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방형과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하며 혼전 성 관계는 여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성 관계는 강하게 부정하는 순결중시형, 성 관계는 남녀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며 연인들의 피부접촉을 애정표현으로 생각하는 애정표현의 수단형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이 공유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어 짧은 기간동안 변화된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최초의 성교경험은 평균 12.9세인 반면(Moody, 1990)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교를 경험한 남학생의 88.8%가 15-19세, 여학생의 46.6%가 15세 미만이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화, 1993)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그리고 결혼 가정의 학생에

서 성교경험이 더 높았다(성한기, 1996). 이처럼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으로 성적 미숙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관계는 성인이 된 이후의 성생활은 물론 결혼생활에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비뚤어진 성 의식을 심어주게 되며 결국 성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성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무조건 억눌려왔던 성 문제가 여과 없이 유입된 서구문화와 성욕을 부추기는 기성세대들의 무 방비적인 섹스산업 앞에서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고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초기 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급기야 1997년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용 성교육 교과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한 바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엄숙주의적 성도덕 교육은 한낱 위선으로 비추어질 뿐 설득력이 없었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성 경험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안 가르쳐 준다고 항변해 왔다(이영자,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성교육은 대상자 스스로가 성의 주체로서 그들의 성담론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확립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나라 군대는 징병제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성들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낸다.

학업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 시기를 다소 연기할 수는 있어도 면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창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허용될 즈음 약 2년간이라는 군대생활은 생리적으로 성적 욕구가 왕성한 시기에 있는 사병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박인준, 윤정섭, 정상교(1995)가 사병 300명을 대상으로 한 육군병사들의 성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병들의 사정경험률은 93.6%였고, 첫 사정은 자위행위로 인한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자위행위 경험률은 91.6%였다. 이들이 자위행위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많았으며 53.3%에서 군 입대 후에 자위행위의 빈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사병들의 68.5%가 성교를 경험했으며, 첫 성교경험 시기는 고등학교가 34.8%였고 군 입대 후 휴가 때 성교를 경험한 경우도 41%였다. 대상자의 6.9%가 성병을 경험했으며 성병 경험자의 31.8%가

군 입대 후 성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군대가 사병들의 성병 발견과 관리에 소홀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의 섹스 파트너와 무분별한 성 경험으로 감염되는 에이즈는 전체 감염자의 약 45% 정도가 15- 24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WHO,1999) 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에이즈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치료방법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백신개발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예방이며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하여 행하면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다(염창환, 이해리, 최윤선, 2001).

또한 사병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입대 후 성교육에 대해 조사한 이영선과 정문숙(2001)의 연구에서는 과거 여성에게는 순결을 절대적으로 강요했던 남성위주의 성 윤리에서 남녀평등의 성 윤리로 의식의 변화를 보였고, 피임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998년 이후 최근까지 2년 동안 현역 사병들의 성범죄 건수는 강간 244건, 동성간 추행 등 133건을 포함해 모두 666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폭력과 성추행이 위험수위를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휴가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대상자의 10.5%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강압적으로 요구받거나 주위에서 이를 보고들은 것으로 답했는데 그 피해 형태는 성행위 흉내내기, 신체 애무, 성경험담 발표, 동침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오럴 섹스 순 이었다(<http://www.omygod.co.kr>). 이는 군내에 컴퓨터가 크게 늘어나 pc통신들을 통해 음란물이 사병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는 1999년 10월 이후 성교육 민간 전담 기관을 위촉하여 신병 훈련소와 사관학교 등 장병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 기간 중 1회 2시간씩 수준 높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YMCA등 민간단체로부터 교육매체 등을 지원 받아 성교육에 활용하고 있다(조선일보, 1999년 5월 21일자). 현재 일부 간호대학 교수들이 군 내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간호교육의 대상과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6월 국군 00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자가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장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장교가 설문지를 배포, 회수해 주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75부로 회수율은 92%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275부 중 불성실하게 답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한 총 24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2. 조사도구

1) 성 의식

성 의식 측정 도구는 김형준 등(2001)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발한 문항을 본 연구자들이 군 사병에게 알맞게 수정, 보완한 내용을 성교육 담당 교관이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7문항, 혼전동거 관련 2문항, 이성교제와 동성애 관련 3문항, 성교육 관련 2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에이즈에 대한 지식

에이즈에 대한 지식측정 도구는 오정아(1997)가 개발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 39문항의 3점 척도로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범위는 0-3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794$ 이었다.

3) 에이즈에 대한 태도

에이즈에 대한 태도측정 도구 역시 오정아(1997)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5점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15-75점이며 이중 10개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계수 Cronbach's $\alpha = .7001$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성 의식은 백분율을,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와의 차이는 t-검정 및 ANOVA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들의 연령은 만 19-21세 사이가 60.2%, 22-25세 사이가 39.8%로 모두 미혼이었다.

교육정도는 61.6%가 대학재학 중이었으며 6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90.9%에서 아버지가 그리고 97.5%에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남자형제와 여자형제는 각각 1명인 경우가 42.3%, 46.9%로 가장 많았다. 성교육은 78.1%에서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중 고등학교 때 성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52.1%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성 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도 63.6%에 달하였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는 65.2%이었고, 음주를 하는 경우도 67%이었으나 마약 등 약물을 경험한 경우는 2%에 불과하였다(표 1).

2. 대상자의 성 의식

대상자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에서는 60.7%가 보통정도로 알고 있으며 26.4%가 잘 아는 편에, 12.8%가 잘 모른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자신들이 항의를 받은 경우는 95.8%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적인 손해배상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21.6%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78.1%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장면을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2)

특성	구분	N(%)	특성	구분	N(%)
연령(세)	19-21	146(60.2)	성교육 유무	유	188(78.1)
	22-25	96(39.8)		무	54(21.9)
교육정도	고졸 이하	88(36.4)	†성교육을 처음 받은 시기	초등학교	10(5.3)
	대학 재학	149(61.6)		중학교	61(32.4)
	대졸 이상	5(2.1)		고등학교	98(52.1)
				대학교	2(1.1)
군대	16(8.5)				
기타	1(0.5)				
종교	유	149(62.0)	성 관계 경험	유	154(63.6)
	무	93(38.0)		무	88(36.4)
아버지 생존 여부	유	220(90.9)	현재 흡연 여부	유	157(65.2)
	무	22(9.1)		무	85(34.8)
어머니 생존 여부	유	236(97.5)	현재 음주 여부	유	161(67.0)
	무	6(2.5)		무	81(33.0)
남자 형제 수(명)	0	96(39.8)	약물 경험 여부	유	6(2.0)
	1	103(42.3)		무	236(98.0)
	2 이상	43(17.8)			
여자 형제 수(명)	0	76(31.5)			
	1	114(46.9)			
	2 이상	52(21.6)			

† N= 188

목적했을 경우에 취할 조치로는 48.1%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42.3%가 가해자에게 항의하겠다고 응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상자들이 모두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 등에서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당해 불쾌한 경험을 한 경우가 10.4%이었고, 주위사람들의 성적농담이나 표현으로 불쾌한 경험을 한 경우도 19.6%에 달하였다.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50.6%, 사생활 문제이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38.6%로 89.2%에서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상대자가 과거에 동

거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과거의 일이므로 문제삼지 않겠다고 27.4%에 불과하였으며 당시의 상황을 알아본 후 결정하겠다고 54.8%,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16.2%로 대부분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성교제시의 애정표현에 대한 허용범위는 46.4%가 성교관계, 23%가 성교관계 이외의 모든 행위 즉 포옹, 키스, 애무 등을 꼽았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83.6%가 반대를 하였고,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43.8%가 중도적인 입장을, 35.9%에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표 2〉 대상자들의 성 의식

문	항	구	분	N(%)
1. 성희롱 내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9(3.7)
		잘 아는 편이다		55(22.7)
		보통이다		147(60.7)
		잘 모른다		30(12.4)
		전혀 모른다		1(0.4)
2.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로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10(4.2)
		없다		232(95.8)
3. 성희롱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적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9(3.7)
		재산적인 손해배상과 고용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52(21.6)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된다		149(61.4)
		아는 바 없다		32(13.3)

<표 2> 대상자들의 성 의식(계속)

문항	구분	N(%)
4. 성폭력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적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4(1.7)
	재산적인 손해배상과 고용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26(10.7)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된다	189(78.1)
	아는 바 없다	23(9.5)
5. 만약 다른 사람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117(48.1)
	가해자에게 항의한다	102(42.3)
	그냥 모른척 한다	12(5.0)
	기타	11(4.6)
6. 술자리 등에서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25(10.4)
	없다	217(89.6)
7. 주위사람들의 성적 농담이나 표현으로 불쾌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47(19.6)
	없다	194(80.4)
8. 혼전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5(10.4)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123(50.6)
	사생활 문제이므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93(38.6)
	기타	1(0.4)
9. 미래에 귀하의 결혼후보가 과거에 동거를 한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39(16.2)
	당시 상황을 알아본 후 결정하겠다	133(54.8)
	과거의 일이므로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66(27.4)
	기타	4(1.7)
10. 이성교제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용	9(3.8)
	키스	55(22.6)
	애무	10(4.2)
	성교관계	112(46.4)
	성교관계 이외의 모든 행위	56(23.0)
11.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0(0.0)
	찬성하는 편이다	4(1.7)
	보통이다	38(15.8)
	반대하는 편이다	81(33.6)
	매우 반대한다	119(49.0)
1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8(3.3)
	찬성하는 편이다	41(16.9)
	보통이다	106(43.8)
	반대하는 편이다	47(19.4)
	매우 반대한다	40(16.5)
13.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53(63.4)
	아니오	89(36.6)
14. 만약 성교육을 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신, 낙태, 피임	59(24.4)
	성희롱, 성폭력	50(20.5)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71(29.5)
	남녀간의 성구조, 기능 및 성심리	15(6.4)
	발기부전 등의 성적장애	3(1.3)
	성기능 증진약물, 보조기구	4(1.7)
	에이즈, 성병	40(16.2)

한편 군 생활 동안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조해야 할 성교육의 내용으로는 성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임신과 낙태 및 피임, 성희롱과 성폭력, 에이즈 및 성병 등의 순 이었다(표 2).

3.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상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는 평균 22.31 ± 7.23점(범위 0-39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57.21점으로서 낮았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54.03 ± 6.05점(범위 15-75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72.04점으로

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3).

〈표 3〉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 수	N	평균±표준편차	범위
지 식	242	22.31±7.23	0-39
태 도	242	54.03±6.05	15-75

에이즈에 대한 지식에서 70% 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은 '에이즈 병원균은 일반 소독약에 의해 소독

된다(96.7%)', '에이즈 환자는 차매에도 걸리기 쉽다(90.9%)', '에이즈에 걸리면 1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설사를 한다(87.6%)', '최근 에이즈 치료를 위한 백신이 개발되어 졌다(77.7%)', '에이즈에 걸리면 체중이 10% 이상 감소된다(73.6%)', '에이즈에 걸리면 암이 생기기 쉽다(73.1%)' 등 6개 문항이었다(표 4). 또한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나는 에이즈 환자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

〈표 4〉 대상자들의 에이즈 지식에 대한 정·오답률

문	항	오답률 N(%)	정답률 N(%)
1.	에이즈는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17(7.0)	225(93.0)
2.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걸린다.	82(33.9)	160(66.1)
† 3.	에이즈와 성병의 원인균은 똑같다.	104(43.0)	138(57.0)
† 4.	에이즈의 원인은 아직 모른다.	108(44.6)	134(55.4)
† 5.	에이즈 환자와 한 그릇에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63(26.0)	179(74.0)
6.	주사로 마약을 맞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다.	121(50.0)	121(50.0)
7.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18(7.4)	224(92.6)
† 8.	에이즈는 헌혈을 하면 걸릴 수 있다.	133(55.0)	109(45.0)
9.	에이즈에 걸린 임산부는 태아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	46(19.0)	196(81.0)
10.	에이즈 환자가 쓰던 면도날을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68(28.1)	174(71.9)
11.	에이즈는 엄마 젖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다.	130(53.7)	112(46.3)
† 12.	에이즈 환자가 사용하던 컵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75(31.0)	167(69.0)
† 13.	확장실 좌변기, 공중목욕탕, 수영장에서 에이즈에 걸릴 기회가 많다.	89(36.8)	153(63.2)
† 14.	에이즈는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걸릴 수 있다.	96(39.7)	146(60.3)
† 15.	에이즈는 모기나 해충을 통해 걸릴 수 있다.	125(51.7)	117(48.3)
† 16.	에이즈 환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55(22.7)	187(77.3)
17.	에이즈 환자로부터 장기를 이식 받았을 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72(29.8)	170(70.2)
18.	에이즈 환자와 성 관계를 가지면 에이즈에 걸린다.	21(8.7)	221(91.3)
19.	동성간에 성 관계를 갖는 것이 이성간에 성 관계를 갖는 것보다 에이즈에 더 걸리기 쉽다.	79(32.6)	163(67.4)
20.	에이즈에 걸리면 체중이 10% 이상 감소된다.	178(73.6)	64(26.4)
21.	에이즈에 걸리면 1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설사를 한다.	212(87.6)	30(12.4)
† 22.	에이즈 증상은 에이즈에 걸린 후 즉시 나타난다.	54(22.3)	188(77.7)
23.	에이즈에 걸리면 암이 생기기 쉽다.	177(73.1)	65(26.9)
24.	에이즈 환자는 결핵에 잘 걸릴 수 있다.	139(57.4)	103(42.6)
25.	에이즈의 잠복기는 평균 8-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145(59.9)	97(40.1)
26.	에이즈 환자는 차매에도 걸리기 쉽다.	220(90.9)	22(9.1)
27.	에이즈 환자 피부에는 발진, 감염, 물집 등이 잡혀있다.	112(46.3)	130(53.7)
28.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다.	108(44.6)	134(55.4)
† 29.	피임약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104(43.0)	138(57.0)
30.	성교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26(10.7)	216(89.3)
31.	우발적인 섹스를 피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111(45.9)	131(54.1)
† 32.	에이즈를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가 가능하다.	146(60.3)	96(39.7)
33.	섹스 파트너가 한 사람 이상이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107(44.2)	135(55.8)
34.	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29(12.0)	213(88.0)
35.	에이즈 검사에 사용되는 검체는 혈액이다.	94(38.8)	148(61.2)
36.	에이즈 병원균은 일반 소독약에 의해서 소독된다.	234(96.7)	8(3.3)
37.	1회용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된다.	92(38.0)	150(62.0)
† 38.	최근 에이즈 치료를 위한 백신이 개발되어 졌다.	188(77.7)	54(22.3)
39.	수혈은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61(25.2)	181(74.8)

†; '아니오'가 정답인 문항

(2.82점)', '에이즈 환자는 일정한 곳에 격리시켜야 한다(3.08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에이즈의 지식과 태도를 보면 지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인 사병이 고졸이하의 학력 수준인 사병보다($F = 15.5, p = .000$),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사병이 작고하신 사병보다($t = 2.73, p = .007$), 남자형제의 수가 한 명도 없는 사병이 2명인 사병보다 그리고 남자형제가 1명인 사병이 2명인 사병보다($F = 4.00, p = .020$) 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 태도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중인 사병이 고졸이하의 학력 수준인 사병보다($F = 5.33, p =$

.005), 남자 형제가 한 명도 없는 사병이 한 명인 사병보다 에이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타 나머지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는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4.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는 $r = .337(p = .001)$ 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였다(표 6).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지식 및 태도

특성	구분	N(%)	지식	t or F	p-value	태도	t or F	p-value
			Mean±SD			Mean±SD		
연령(세)	19-21	146(60.2)	21.7±7.4	1.63	0.105	54.5±6.0	1.31	0.191
	22-25	96(39.8)	23.3±6.9			53.4±6.1		
교육정도	고졸 이하	88(36.4)	19.1±8.2a	15.5	0.000	52.4±6.6a	5.33	0.005
	대학 재학	149(61.6)	24.2±6.0a			55.0±5.5a		
	대졸 이상	5(2.1)	20.6±3.4			55.6±6.8		
종교	유	149(62.0)	22.8±7.0	1.39	0.166	54.1±5.8	0.157	0.876
	무	93(38.0)	21.5±7.7			53.9±6.4		
아버지 생존 유무	유	220(90.9)	22.7±6.9	2.73	0.007	54.2±6.1	1.43	0.155
	무	22(9.1)	18.3±8.8			52.3±5.6		
어머니 생존 유무	유	236(97.5)	22.4±7.3	1.48	0.140	54.1±6.0	1.31	0.190
	무	6(2.5)	18.0±3.4			50.8±5.9		
남자 형제 수(명)	0	96(39.8)	23.1±6.4a	4.00	0.020	55.4±5.2a	4.59	0.011
	1	103(42.3)	22.9±7.2b			53.2±6.6a		
	2-	43(17.8)	19.6±8.3ab			52.8±6.0		
여자 형제 수(명)	0	76(31.5)	22.7±7.1	0.73	0.483	53.2±6.1	0.92	0.400
	1	114(46.9)	22.6±7.4			54.4±6.2		
	2-	52(21.6)	21.3±6.8			54.4±5.7		
성교육 유무	유	188(78.1)	22.5±7.2	0.61	0.544	54.3±5.8	1.29	0.200
	무	54(21.9)	21.8±7.4			53.0±6.4		
성교육 받은 시기	초등학교	10(5.3)	24.9±5.8	0.41	0.838	55.2±3.9	0.77	0.572
	중학교	61(32.4)	22.3±8.0			55.0±5.8		
	고등학교	98(52.1)	22.6±6.9			54.0±6.0		
	대학교	2(1.1)	20.5±9.2			49.0±8.5		
	군대	16(8.5)	21.4±6.5			54.8±5.5		
기타	1(0.5)	27.0±	59.0±					
성관계 경험	유	154(63.6)	22.3±7.4	0.02	0.986	54.1±6.4	0.24	0.808
	무	88(36.4)	22.3±7.0			53.9±5.3		
현재 흡연 유무	유	157(65.2)	21.9±7.3	1.67	0.096	54.2±6.5	0.19	0.853
	무	85(34.8)	23.6±6.3			54.1±5.0		
현재 음주 유무	유	161(67.9)	22.8±6.9	1.05	0.293	54.5±6.0	1.47	0.144
	무	81(32.1)	21.8±7.1			53.3±6.0		
약물 경험	유	6(2.5)	23.0±5.1	0.20	0.843	56.1±5.9	0.84	0.400
	무	236(97.5)	22.4±7.2			54.1±6.0		

a, b; Scheffe test에 의해 같은 문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6〉 에이즈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r)

	에이즈 태도
에이즈 지식	0.337 (p=.001)

V. 논 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병들의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정도는 대부분 보통정도 라고 응답하였고 '잘 안다'는 정도가 26.4%에 불과하여 그 인식정도가 낮았다. 특히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87.1%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나 성희롱은 21.6%만이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61.4%에서 성폭력과 같은 수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형준 등(2001)의 연구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잘 안다'는 정도가 25.4%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법적 책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비율이 성희롱의 경우 40.9%인 대학생보다 낮았으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85.6%로 나타나 대학생과 비슷하였다.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인 사병들의 연령이 대부분 20-23세 사이에 있었으며 61.6%가 대학재학 중인 것과 무관치 않겠다. 다만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오히려 성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사병들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사병의 90.4% 이상이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하겠다고 밝혀 86%였던 대학생보다 높았는데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군인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사병들이 모두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신체접촉 및 진한 성적농담 등으로 불유쾌한 경험도 10-20%에 달해 이제 성희롱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짐작케 하였는데 상명하복의 군대 내에서 계급이 낮은 사병들이 상급자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처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수면 밑에서 일방적으로 묻혀져 왔던 직장과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가 최

근 여성보호의 차원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702호)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 5933호)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홍보와 교육이 요구된다.

혼전동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89.2%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김형준 등(2001)의 연구에서 86.9%가 혼전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다. 혼전 동거의 문제는 혼전순결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고 보겠다. 이영선과 정문숙(2001)이 군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3.5%의 대상자가 미혼인 남자가 서로 사랑하면 혼전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한 결과와도 일치하여 신세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병들 전수가 모두 미혼이었음에도 63.6%에서 성 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유남구와 양경화(2000)가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8%가 사랑하는 사이나 결혼할 사이라면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결과와 양경화와 유정모(1999)가 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6%만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이 두 연구의 대상자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이거나 저학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결혼상대자가 과거에 동거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27.4%만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혼전 동거나 순결에 대해 이중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성교제시의 애정표현에 대한 범위도 46.4%에서 성교관계까지 허용하고 있었는데 요즈음 순결의 의미는 성 경험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하거나 임신시킨 경험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영선과 정문숙, 2001)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병들은 성교육 내용으로 성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준 등(1995)이 연구한 육군 병사들의 성행위에 의하면 성교경험의 대상은 애인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여자친구 순 이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16%에서 한 두 번 만난 여자, 11.7%에서 창녀와도 성교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혼 전 충동적인 성 관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에이즈나 성병 등 각종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82.6%가 반대를 하였고, 성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35.9%에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의식은 사회적인 규범의 틀 내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나 15.8%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차치 남자들만이 모여 사는 군대 내에서 이탈된 성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리가 요망된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사병들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39점 만점에 22.31±7.23점으로 낮았는데 이는 오정아(1997)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였던 고등학생(24.4±5.3점)과 비슷한 점수였으며, 전미경 등(1999)이 성인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에이즈 지식정도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이는 직장인이 사병보다는 기혼자가 더 많아서 성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과 밀접한 질병인 AIDS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으나 고등학생 때와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식측정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은 '에이즈 병원균은 일반 소독약에 의해서 소독된다(96.7%)', '에이즈 환자는 치매에도 걸리기 쉽다'(90.9%)' 였는데 오답률 순위는 오정아(199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교육 수준이 높고 부친이 생존해 계시며 남자 형제 수가 적은 사병일수록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나 학년이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아진다는 Brook(1993), 오정아(1997)의 연구와 일치하나 부친의 생존여부와 남자형제 수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서의 차이는 더 연구해 볼 문제이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54.03±6.05점(범위 15- 75점)으로서 오정아(1997)의 연구결과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힘써야 한다(4.38±0.87점)', '나는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위

험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4.26±0.87점)',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4.05±0.89점)', '에이즈 환자로도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 혜택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4.04±0.86점)'의 문항에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반면 '나는 에이즈환자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2.83±0.98점)'는 문항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통계(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에이즈 환자 수는 2000년 말 기준으로 1,280명(남자 1,180명, 여자 162명)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6명으로서(남자 256명, 여자 30명)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우리나라 처럼 아직 환자 수가 적은 나라일수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WHO(1999)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전체 에이즈 신환 발생률은 약 45%정도가 15- 24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염창환 등(2001)은 24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에이즈 지식과 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Brown 등(1990), Krasnik & Wang(1990), 염창환(200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Morton(1986), 오정아(199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어 각각의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지식은 학교나 책을 통해 얻어지지만 태도는 그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진단된 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현재는 예방만이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하면 100% 예방이 가능하므로(염창환, 2001) 사병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권관우 등(2000)은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 4,083명을 대상으로 성과 에이즈에 관한 보건교육 방법별 효과측정에서 성과 에이즈 예방교육 시 슬라이드 교육이 육성 교육이나 영상교육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임을 보고한 바 있어 성교육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일부 군 사병들의 성에 관한 의식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군 사병의 성교육 내용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2002년 6월 충청도 소재 육군 00부대 소속 사병 242명을 대상으로 성 의식 14문항, 에이즈에 대한 지식 39문항, 에이즈에 대한 태도 15문항 총 68문항의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과 ANOVA 및 Scheffe/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병들의 성 의식:

1)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정도는 '잘 안다'는 정도가 26.4%에 불과하여 대부분 인식정도가 낮았다.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6%이었으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78.1%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 또한 90.4%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2)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89.2%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자신의 결혼상대자의 동거경험에 대해서는 71%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 이성교제 시 애정표현에 대한 허용범위는 46.4%가 성교관계라는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4)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83.6%에서 반대하였고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도 찬성 20.2% 보다는 반대 35.9%로 반대가 더 우세하였다.

5) 군 생활동안 성교육은 63.4%에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원하는 교육의 내용은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임신·낙태·피임에 대한 지식,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지식 등의 순 이었다.

2. 사병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1) 에이즈 지식정도는 평균 22.31±7.23점(범위 0-39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54.03±6.05점(범위 15-75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2) 에이즈에 대한 지식에서 90%이상의 오답률을 보인 문항은 '에이즈 병원균은 일반 소독약에 의해 소독된다(96.7%)', '에이즈환자는 치매에도 걸리기 쉽다(90.9%)'였고 에이즈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나는 에이즈환자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 '에이즈환자는 일정한 곳에 격리시켜야 한다'의 순 이었다.

3)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경우 대학재학 중인 사병이 고졸 사병에 비해, 부친이 생존해 계신 사병이 작고한 사병에 비해, 남자형제 수가 적은 사병일수록 더 높았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도 대학재학 중인 사병이 고졸 사병보다, 남자형제 수가 없는 사병이 1명인 사병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4)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 = .337, p = .001$) 이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군 사병들의 성 의식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그에 반해 성희롱이나 성폭력 또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연령적으로 성적 충동이 매우 강한 시기이므로 그들이 올바른 성 의식과 건전한 성태도를 확립하여 추후 성적욕구 해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병들의 성교육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며 현실적이고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한 군대 내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성교육 전문가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방일보 (1999) 1999년 5월 22일자. -건전한 성문화 정착시킨다.
권관우, 이경무, 김훈수, 김정순, 정경균 (2000). 성과 에이즈에 관한 보건교육 방법별 효과측정.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7(2), 1-14.
권현주, 정혜경, 류은정, 정연강 (1998). 대학생들의

- 성 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2), 229-241.
- 김정아 (1982). 일부 사병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형준, 장재욱, 조숙희, 이장주, 윤태영 (2001). 성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8, 80-111.
- 박인준, 윤정섭, 정상교 (1995). 육군병사들의 성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군건의학 학술지, 26(1), 72-85.
-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부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성한기 (1996). 대학생들의 성 의식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 가톨릭대학교논문집, 52, 207-229.
- 안재성 (1983). 고등학교 성교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 22.
- 양경화, 유정모 (1999). 대학 학생의 성 의식 조사 분석. 전주공업대학 학생생활 연구, 8, 146-179.
- 염창환, 이해리, 최윤선 (2001). 젊은 미혼 남성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호스피스 의료완화학회지, 4(1), 4-13.
- 오정아 (1997).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남구, 양경화 (2000). 성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 조사. 전주공업대학 학생생활 연구, 9, 133- 164.
- 이영선, 정문숙 (2001). 병사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입대 후 성교육. 경북간호과학지, 5(1), 57-74.
- 이영자 (2000). 청소년·소녀 성문화의 특성과 학교 성교육의 과제. 성평등연구, 4, 7-34.
- 이명화(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 전미경, 김초강, 진기남 (1999). 성인 남성 직장인의 AIDS 관련 지식, 태도 및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16(2), 1-17.
- 전찬원 (1979). 군장병 상담의 방법론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1999). 1999년 5월 21일자 군장병 성교육 1년에 4시간씩.
- 하양숙, 이경순, 공수자, 김명자, 노춘희, 양 수, 이정섭, 임영숙 (1995). 정신간호학. 서울: 현문사.
- Brown, L. K., Nessau, J. H., Barone, V. C. (1990). Differences in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by grade level. J School Hlth, 60, 270-275.
- Brook, U. (1993). AIDS-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Holon, Israel. J Trop Pediatr, 39, 382-384.
- Fauci, A. S., Lane, H. C. (1998).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Disease: AIDS and related disorder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 J., Wilson, J. D., Martin, J. B., Kasper, D. L., Hauser, S. L., Lango, D. 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4th ed. New York: McGraw- Hill.
- <http://www.omygod.co.kr/data/mong/magazine/html-2>.
- Krasnik, A., Wangel, M. (1990). AIDS and Danish adolescence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relevant to the prevention of HIV infection. Dan Med Bull, 37, 275-279.
- Morton, A. D. (1988). Attitudes to and knowledge about AIDS lack of correlation. BNJ, 293, 1212.
- Moody, L. P. (1990).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ected situa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contraceptive use and pregnancy risk among adolescent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1998). life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for All, WHO, Geneva.
-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1999). Estimated cases of adult HIV infection and AIDS.
-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2001). Estimated cases of adult HIV infection and AIDS.

Sexual Orientatio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among Military Personnel in Korea

Kim, Nam Cho · Oh, Jeong Ah(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Han, Hye Ja · Kim, Mee Hye(Shin Sung College, Dept. of Nursing)

Kim, Joon Kweon(Shin Sung Colleg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ee, Hye Ja(Shin Sung College, Dept. of Physical Therapy)

Kim, Mee Jung(Shin Sung College, Dept. of Food Service &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assess sexual orientation and Knowledge and attitudes with regards to AIDS in military personnel,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further sex education program for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in June 2002 on 242 service members of A Branch of the Ground Army located in Chung-Chung Do Region. They responded to a survey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68 items: 14 items on sexual orientation, 39 items on knowledge about AIDS, and 15 items on attitudes toward AID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program.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Sexual orientation of the military personnel

- 1) In terms of sexual orientation, harassment and assault, only 26.4% of the subjects responded as, 'know well'. Appropriate awareness of the legal liability was reported by 21.6% of the subjects regarding sexual harassment and 78.1% of the subjects regarding sexual assault.
- 2) Pre-marital cohabitant was supported by 89.2% of the subjects.
- 3) The Korean military personnel showed liberal attitudes toward sexuality as 46.4% of them reported having sexual-relationship with the dating partner is acceptable.
- 4) The attitudes of the most subjects toward homosexuality was found to be unfavorable.
- 5) Subjects were in the need of appropriate sex education, of which substantial knowledge on sexual intercourse was the most needy area.

2.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of the military personnel

- 1) The subjects' level of knowledge on AIDS was relatively low, showing the average score of 22.31 ± 7.23 points (range: 0-39 points). The higher level of knowledge was reported by those who had high level of education, father alive, and less number of brothers in their family.
- 2) The subjects' attitudes toward AIDS was relatively positive. The attitude toward AIDS was also found to be more positive in those who had high level of education and less number of brothers.
- 3) There was a positive but weak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IDS.

The study finding showed that the sexual orientation of the Korean military personnel was moderately positive and liberal. However, their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and AIDS was still found to be low. As Korean enlisted military service men are likely to be in the ages with strong sexual desire, it may be important for them to have appropriate sexual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AID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further practical and sound sex education programs within the military unit in order to meet their education needs as well as to utilize sex education specialists as the instructors of those programs.

Key words : military personnel, sex orientation, AIDS.